

〈리포오트〉

東南亞地域 타이어界 巡訪記

高 井 巖

A. 新嘉坡 業界

東南亞에서 가장 安定된 나라

盤谷으로부터 新嘉坡까지 2時間餘, 프로오팅마켓트로 船遊를 한뒤 泰國王의 王宮을 달음박질로 돌고 그 길로 新嘉坡行의 飛行機에 뛰어 올랐다.

그러므로 모처럼의 日曜日을 盤谷에서는 中村部長을 新嘉坡에선 山田社長 以下の BS 新嘉坡(BSS)의 여러 分들을 귀찮게 했다. 空港에서는 山田社長以下 楠原, 塚本, 天瀬氏等 BS의 諸位가 빛에탄 얼굴로 出迎해주었다. 「오늘도 골프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라고했다.

新嘉坡는 아름다운 거리였다. (寫眞1 參照)

日本の 觀光業者 같으면 「森林속에 거리가 있는 나라」라고도 кет치프레이즈를 案出해닐런지도 모른다.

나무와 나무사이에 기다랗게 高層建物이 櫛比하고있었다. 아파아트라고 했다.

「이나라의 政府는 政策이 宏壯히 確固해서 高層아파아트를 속속세우고 있습니다」라고 山田社長도 感嘆한 語調로 말했다.

살이타든가 日用品은 可及的 安價로 늘려두고 그 代身 別로 必要치않는 高級品엔 重課稅를 한다고 하는 式의 政策을 取하고있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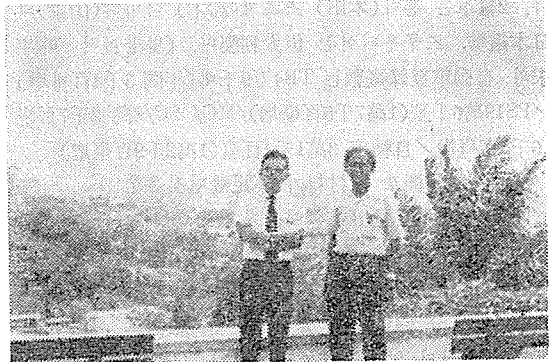
멘손이라도 政府에서 세운것은 3DK로 100萬圓 程度면 얻을수 있는 모양이다. (民間에서 세운것은 亦是 비싸다)

GNP로는 亞細亞中에서 日本에 다음가는 第2位이지만 住宅事情에 限해서는 日本보다 數段 上位인것 같은 感이 들었다.

사람 資本 原材料의 로오칼化를

BSS—BS의 海外 工場 第1號로서 1963년에 進出,

當初의 豫定으로는 人口 1千萬名, 世界一의 天然고무의 產出을 자랑하는 馬來聯邦을 市場對象으로하여 計劃된것, 그런데 1965年 8月 新嘉坡가 馬來聯邦으로 부터 突然分離獨立했기때문에 人口 210萬名 淡路島程度의 좁은 新嘉坡市場을 相對로 하여 몹시 苦生을 했다고한다.



寫眞 1 싱가포르는 아름다운 거리다. 숲속에 高層建物이 林立한다. 그 大部分은 아파아트다. 앞에 서있는 이는 左側이 BS싱가폴의 塚本部長, 右側은 運轉士님.

그後 輸出에 活路를 찾아 現在에는 純利益 3億圓(73年)을 내기에 까지 이르렀다. 翌日 工場을 訪問. 泰國BS의 諸位가 泰國BS工場이 콤팩트한것은 「新嘉坡에 投資를 너무많이했다고 하는 그 反省(反動?)……」이라고 不平을하고 있었던것 처럼 大端히 돈이 많은 工場이란것이 外觀으로서도 알수가 있었다(寫眞2 參照)

첫째 「如斯히 아름다운 거리이지요. 이거리에 適合한 工場을, 이라고 하는 政府의 指導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되었지요」란 것은 BSS側의 反論. 現在에선 月產 350~360屯(日產 14.5屯) 生産品種은 OR(建設車輛用)로 부터 自轉車用까지 350種類, 中 每月 라인에 흐르고 있는 것은 約 100사이즈 스틸라디알은 2사이즈—18.5—SR14 (RD 170V)와 RD 12 (700—13=택시用), 곧 天瀬氏 森谷氏를 合해서 座談會의으로 山田社長에 인터어뷰우,

「問」싱가폴의 BSS의 세어는?

「山田」T.B.MC.SC(스쿠우터어). 自轉車는 100% 이나 PS(乘用車用)는 80%, PS는 月 3千本假量 輸入되고 있다. 그 半이 밋슈란,

「問」OE(新車用) REP(補修用) 輸出의 比率은?

「山田」國內가 50% 輸出이 50% 國內販賣中 OE 가 20% REP가 70% 其他 軍用이 있다.

「問」輸出處는?

「山田」이락, 피이지, 달타等 舊英聯邦關係國이 主였던 곳이다 (特히 이락은 輸出分의 40%를 占하고 있다고 天瀨氏가 補充說明해 주었다)

「問」BS 싱가포르는 大端히 苦生했을 것같은데……

「山田」當初 10톤을 目標로 했으나 3~4톤 테이스가 數年 계속됐다 67~68年 부터 폐이되게끔되어서 再昨年부터 12.7톤, 昨年は 14톤 特히 昨年 5月 부터 需要가 減었다.

「問」新嘉坡의 自動車의 狀況은?

「山田」4輪車는 포오드, 벤츠, 폴크스바겐이 强하다. 2輪車는 혼다(本田) 스즈끼(鈴木) 야마하(山葉)의 日本趨勢, 스쿠우터어는 伊太利製다. (덧붙여서 昨年末의 自動車登錄臺數는 TB4萬9千대(年間 3千4百대增) / PS19萬6千臺(1萬7千5百臺增)/MC/ SC/2萬 2千7百臺(6千5百臺增) / 自轉車 3萬1千4百臺(1萬2千9百臺增)

「問」石油危機로 原材料가 不足했던것은?

「山田」不足했던일은없다. 이것을 BS本社가 優遇해 주었기때문이라고, 原材料를 輸入에 依存하고 있기때문에 注文을 하더라도 곧은 안들어온다. 故때문에 스트크를 1個月分 假量하고 있기때문에 逆으로 石油危機의 餘波를 입지 않고도 되었다?

「問」昨年の 賣上은

「山田」2,400萬新嘉坡弗(約 26~27 億圓) 純利益은 280萬新嘉坡弗(約 3億圓)

「問」今年的 展望은?

「山田」2,800萬 新嘉坡弗(約 30億圓)를 目標로 하고 있다. 純利益은 原材料가 高騰하고 있으므로 昨年度度 兪일것이다.

(配當은 2割인 모양이다. 그러나 이것은 提擧하고 있는 當地의 資本이 旣 方面에서 資金을 모으기 때문에 BSS의 配當을 增게하여 PR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今年은 1割 5分 配當으로 한다는것)

「問」價格의 引上은?

「山田」國內用은 15% 兪프했다. 輸出은 30% 兪프했으나 最大의 市場, 이락에 많이 못한것이 怨痛하다.

「問」勞動條件은?

「山田」싱가포르에서는 톨레벨(BSS는 石川島播磨에 이어서 두番계로 進出했다. 勞動條件도 BS의 條件이 決定되고서 日系企業에도 現地企業에도 波及해갔다. 불

루우칼라의 平均賃金은 275\$ (約 3萬圓)보오나스는年 1回 1個月分, 불루우칼라아와 화이트칼라아의 賃金差는 2倍以上이라고 天瀨. 森谷氏는 補充說明했다. 이 화이트칼라아와 불루우칼라아의 格差, 亦是 新嘉坡에서도 今後問題가 되겠지요, 라고 山田社長은 附言했다).

「問」新嘉坡人의 管理職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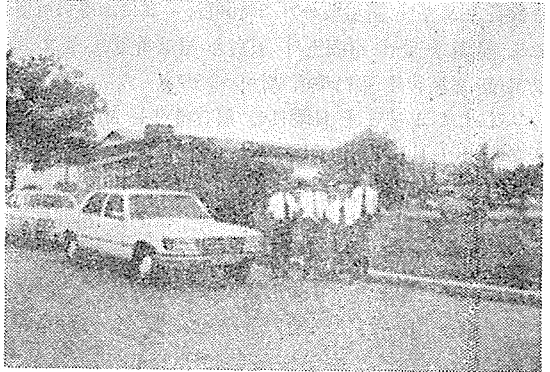
「山田」管理職은 部長 1名 課長 9名, 이 9名中 8名은 昨年の 2월에 登用, 係長 9名 主任 5名, 現場의 職長 以下는 모두 新嘉坡人 이다.

「問」今後的 BSS의 方向에 對해서?

「山田」政府는 自動車가 너무 불었기 때문에 稅率을 높여서 붓는것을 막고 있다.

故로 今年的 國內 의 自動車의 伸率은 10 % 程度일것이다 生産코스트는 日本보다 높게 먹히지는 않았는가, 故로 라더알等 附加價値가 높은 것을 生産하지 않고서는 안되겠지요, 工業用品에의 進出도 檢討하고 있다.

「問」原材料가 올으면 原材料를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BSS는 輸出이 困難해지지는 않을런지?



寫眞 2 BS싱가폴工場, 아름다운 거리에 맞추어서 세운 공장이었으므로 깨끗하다. 左側부터 天瀨氏, 타이어新報社의 金澤編集長 森谷氏, 山田社長, 塚本部長

「山田」輸出은 困難해지 겠지. 이때문에 美國에의 輸出도 생각은 하고있으나……

原材料에 對해서는 昭電(株) 住友化學(株)이 新嘉坡에 進出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도움이 많겠다.

BSS의 今後的 큰 轉機이 로서는 사람의 로오칼化' 可及限 新嘉坡人을 登用 해나갈것. 資本의 로오칼化, 資本比率을 現地資本의 쪽을 많게 할것.

그리고 原材料의 로오칼化, 이 3個다.

(故로 今後的의 姿勢로서는 BS의 子會社라고하는 生覺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獨立한 會社이다라는 思考法이 必要하지는 않을 까라고 天瀨氏는 強調했다. 結局 BS의 新嘉坡工場에선 아니고 新嘉坡의 BS工場 이라고 하는……)

前途 多難한 BSS

獨占企業이라고는 해도 좁은 國內市場 全部를 輸入에 依存하고있다. 거기에다가 田中首相이 訪問했을때 甚한 데모등은 없었던 代身「콜로歡迎」이라고하는 李首相의 말에 代表되고있는 것처럼 뿌리깊은 反日感情, 이러한 難問을 안고서 BSS의 前途는 泰國 보다도 多難하다고 느껴졌다.

馬來聯邦이 結成되었을때 BSS와 同時에 馬來側에 進出한 덴로프는 后 馬來聯邦의 市場을 相對로 BSS의 3倍의 規模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今年의 1月부터는 GY가 馬來聯邦에서 本格的으로 操業을 開始했다.

「이로서 馬來의 一部地域에 輸出하고 있었던 것은 GY에 빼앗겼다」고 山田社長도 머리가 아픈 모양,

「이란에 BS가 進出하게 되더라도 이락의 BSS의 市場에 影響은 없습니까?」하고 質問하니 「이락과 이란은 사이가 不良하므로 이락 政府는 이란 製의 타이어의 輸入은 認定하지 않을것입니다」라고 對答.

또 東洋 고무의 目代社長이 馬來의 見聞談으로서 어느 곳에선가 馬來는 고무의 作木面積을 줄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라고 質問하니 森谷氏는 그런것은 듯고 있지않다 라고 말했다.

그저 昨年은 天然고무가 不足해서 無理를 해서 採取했기 때문에 고무나무를 몹시 괴롭혔다. 그 后 遺症으로 요즈음 2~3年, 고무가 그다지 잘採取가 안될 憂慮는 있다는 것이다.

그后 工場見學, 直接生産에 從事하고 있는 從業員은 360名 3班制이므로 1班 120名, 平均年令 24歲, 亦是 18歲부터 2年間, 兵役이 있다고 한다.

從業員의 75%는 中國系, 勞働의 質은 좋으나 中國人은 權利意識이 強하다. 例를들면 時間前에 作業이 끝났으므로 나머지 時間은 판일을 해달라고 付託 하면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므로 割増料金を 달라고 한다.

안된다고하면 時間前에 作業이 끝난것은 當身내들의 計劃이 서툴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反論해 온다고 山田社長은 투덜뒀다.

또 BSS에는 勞組가 있다. 이 勞組와의 團交에는 上部團體가 나와서 하기어렵다고도 한다. 勞使協調에 익숙한 前 BS久留米工場長인 山田社長에게는 狀況이 다들런지도 모른다.

其後 塚本部長의 案内로 新嘉坡의 타이어 販賣店을 巡廻했다. 이곳의 타이어販賣店도 壓倒的으로 華僑. 昨年의 2월에 印度人의 販賣店이 한집 들어섰을뿐, 이 處는 福建省興化的 出身者가 많다.

于先 新建興타이어, 이 가게에는 BSS의 販賣總代理店 豐陸(흔롱)有限公司의 曾氏가 待期하고 있었다. 우리들의 質問을 塚本氏가 英語로 通譯해서 曾氏에게 曾氏가 다시 中國語로 通譯해서 店主에게 들려준다고 하는 式. 이 曾氏 360 萬圓의 벤츠를 드라이브하고있는 手腕 있는 세일스맨.

이 가게는 T.B가 많다. 翁社長——이라고 하기 보다 新嘉坡의 販賣店——의 販賣方法은 獨特하다 于先 新品타이어로서 그다지 빌려고는 하지 않는다. 新品타이어를 10%의 마아진으로 판다. 그렇게 하면 그 客은 再生하려고 또 온다. (新嘉坡에선 2~3回 再生하는것이 普通이다).

한쪽의 再生으로 10~20%의 마아진을 取한다. 客은 어느程度 쓰면 新品타이어로 또 바꾼다. 그때 古타이어를 無料로 두고 간다. 그것을 또 다시 再生해서 賣上한다고하니 놀라지 않을수 없다.

如斯히 함으로써 1本으로 60%程度의 利益이 나온다 結局 T.B의 小賣價格은 1本 5萬圓이므로 最終的으로 는 3萬圓 벌게되는 셈이다.

말하자면 新品타이어는 複利를 내기 爲한 元金으로 밖에 生覺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思考方式은 中國人의 입김이 길다는것을 느끼게하며 「果然」이라고 生覺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므로 新嘉坡에선 再生 되는 타이어가 좋은타이어의 重要條件의 하나인 것 같다. 湄湄湄란과 比較해서 如何한가, 「耐摩耗性은 湄湄湄 쪽이 위이다. 그러나 湄湄湄란의 것은 70%가량 달리면 브레이크카이에 故障이 일어나기 쉽다. BS의것은 카아카스가 優秀하므로 再生이 可能하다.



寫眞 3 싱가포르의 一角에 있는 BS싱가폴의 廣告看板 「그럼 BS 쪽이 優位」라고 生覺해서 仔細히 들어 본즉 이것은 T.B用 타이어의 이야기, PS는? 「BS의 RD-170V는 94S\$ (約1萬1千圓)湄湄湄란것이 96\$程度」라고 하므로 泰國보다도 BS의 評價가 높은것 같다.

또 BSS의 販賣店 管理도 新嘉坡의 實情에 符合시킨 政策을 取하고 있다.

新嘉坡에선 一般적으로 坡오나스의 시스템이 浸透해 있다. 그 때문에 BSS에서도 美國式의 全部를 合理的으로 運用하는 方法은 體面을 重視하는 人間關係를 尊重하는 中國인이 많은 新嘉坡에선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賣上에 比例해서 坡오나스를 내고 있는 貌樣이었다.

브릿지스톤 타이어(?)

그러므로 이 翁, 最後로 BS에 希望하는 事項은 없을까라고 무른即「坡오나스를 더 받고 싶다. 翁은 70집 있는 BSS의 販賣店가운데서 昨年の 坡오나스 額은 第2位였다는것. 「자가야를 (2臺?)타고 들고있으면서 우리들은 近處에도 못간다」고 塚本部長, 然이나 가게가 前面은 素朴하고 우리들이 인티어부유 할때에도 턴닝샤쓰 한張, 그리고 우리들을 爲해서 찬것들을 내주었으나 세븐업프를 瓶마다에——, 이런것들이 아무리 해도 中國人 답다.

그다음의 가게는 PS를 主로 取扱하고 있는 東南타이어. BS외에 FS(파이어스톤)의 딜러어 權도 갖고있다. 賣上의 70%가 BS로서 PS의 50%는 라디알, 「BS 의라디알은 人氣가 있다. 特히 RD—201은 評判이 좋다」고 陳社長, 「實은……」이라고 塚本部長이 解説했었다.

「그때까지의 RD—20은 評判이 나빠서 輸入 타이어에 몹시 먹혔다. 201로 挽回했다」또 陳氏도 BS의 PS가 人氣가 있는것은 土臺가 確固한것도 原因의 하나이다라고 한다. 恰似 BS타이야가아니고 BS도타이야 (土臺屋)라고 하는것일까,

「GY, FS 는 한番 밖에 再生 안되나 BS 것은 3회가 可能하다」고

너무 再生되는것은 우리로서는 困難 한데요」라고 塚本部長, 이店舖에서 화장실을 빌리니 그것의 正面의 길이에 比해서 그것의 앞에서 안쪽으로의 길이가 宏壯히 길다. 翁의 가게도그랬고 盤谷에서도 그러했다. 그러므로 그들 華僑의 가게는 決코 좋지는 않으나 底力은 大端한 모양이다.

BS에 要望할 것은? 이라고 물은即 價格引上했을 때 「價格引上을 公表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客에게 價格引上이 되었다고 해도 信用을 해 주지 않았다」그리고 亦是 이곳의 陳社長도 最後로 「價格引上은 靚합니다 그러나 坡오나스는 乾트 해 주지마」라고.

B. 인도시네아 業界

BS의 進出에 細密한 條件

자칼타 空港에 到着한것은 해질무렵 비가오고있었다

出迎을 나와주었던 BS印尼의 川口氏와 上野氏 「지금雨期中입니다」이 梅雨前線이 北上해서 日本에는 6月頃到着하는 셈인가. 몹시 머언때까지 왔다는 것을 實感케 되었다. 印尼도 田中首相의 訪問中 大規模의 反日메모가 있었던곳 BS의 諸位도 밤에 外出時에는 만드시 數人 團體가 되어서 함께 行動하기로 되어 있는 貌樣인것 같았다 호텔에 돌아와서 안것이지만 우리들이 投宿한 호텔의 이웃의 빌딩에 BS의 事務所가 있으며 호텔과 그 빌딩은 마루에 連結되어 있었다.

또한 BS의 諸位도 우리들이 投宿한 호텔에 一時. 臨時로 살았다. 뭐라고 할말은 없다. 이래서는 지금 流行하는 住持(절의 우두머리)接近이 아니라 雇傭主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店員이 아닌가 말아야.

밤, 楯社長이하의 BS印尼의 各位와 晚餐을 먹으려고 中華料理집에 갔다. 華僑도 저 데모메에 집집마다 火攻을받아 中華料理店도 지금은 두집밖에 하고있지않다고 한다. 이席上에서 印尼 BS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計劃 했었는데 “只今建設中” 이므로 泰國이나 新嘉坡 처럼 具體的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當然한 것 같았다.

그 代身(?)BS의 各位로부터 나오는것은 印尼GY에 對한 各가지 批判 印尼 GY는 지금까지 35年間に 亘해서 印尼의 市場을 한손에 쥐고 있었다.

「BS의 印尼에의 進出에 對해서 GY는 좋게 生覺하지 않고 있다」 「至今까지 獨占하고 있었던 市場이 荒廢當한다고 그들은 生覺하고 있다」 「뭔가로 크레임을 붙여서는 BS의 工事を 늦추게 하려든다」 「그것도 뒷전에서야 소근소근한다」 「泰國의 경우 BS가 먼저 進出하고 1年 뒤에 GY가 왔을 때에 BS는 妨害같은것 안했습니 다만」이라고 楯社長.



寫眞 4 國道로부터 BS 印尼工場에의 進出道路를 工事하고 있다. 카메라를 걸친 典型的인 日本人 스타일의 우리들을 宏壯히 異常하게보고 있었다.

BS는 泰國에 있어서도 FS(파이어스톤)에 5年 뒤져서 進出했는데도 不拘하고 來年中에는 FS와 어깨를 겨룰程度까지 되었으며 1年 뒤늦게 進出한 GY에는 못미치

고있다. 印尼 GY도警戒하고 있을것같다. 그렇게 말하면 이印尼 GY의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때 BS本社の 石井專務가 不滿을 털어뜨려 그것이 “BS—GY에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라고 하는 新聞記事가 났던것이 있었던것이 想起되었다. 또 BS印尼의 事務所에 印尼 GY製의 타이어의 샘플이 준비하고 있었으나 여기서 만들어진 GY의 타이어의 品質도 世界一의 타이어 메이커의 것 치고선 粗雜하다는 印象을 받았다.

「그러므로 印尼政府도 그것을 알아서 美國의 메이커는 아닌 日本의 메이커의 進出을 認可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BS의 各位의 分析

그러나 BS의 進出에도 여러가지 細密한 條件이 붙어 있다. 그하나에 機械는 全部 最新의 것을 裝置해라, 라고 印尼政府에 要求當하고 있는것같았다. 「實은 最新의 것보다 조금 못한 것을 넣어서 熟練이 되어서야 最新의 것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從業員을 爲해서도좋은데요」라고 楠社長.

日本の 石油危機를 모르는...

또 日本서는 石油危機의 影響을 함부로 받아서 타이어의 製造機械가 집집마다 價格引上되고 있다. 그 때문에 當初의 豫定과 大幅的으로 乖離되고 말았다. 그結果 提携하고 있는 現地資本이 BS는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臆測을하는에는 困難을 겪었다고 투덜댄다. 世界에 高名한 低 硫黃分의 原油를 採取할수 있는 印尼에선 如何히 日本이 石油危機의 影響을 받고있는가 理解할수 없을 것이다. 그밖의 歸路, 火攻을 當한 豐田(Toyota)의 合併會社의 앞을 지났다. 修理工場도 兼하고 있으므로 相當히 큰 建物이지만 네온이나 電燈은 一切켜져 있지를 않았다. 무언가 無氣味한 感까지 들었다 「벌써 이 建物로선 再建이 안될테지요」라고할 程度지만 그後의 情報에 依하면 그럭저럭 再建이 可能한 것같다.

중대가리타이어로 堂堂히 走回

그 翌朝 우리들은 부카시에 建設中인 BS의 工場을 보고 그後 보물에 있는 GY의 工場을 訪問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困難했던 것으로는 通譯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日本人觀光客의 가이드를 하고있는 印尼人을 通譯으로 雇傭했다.

姓名은 야안, 아리君, 26歲, 자갈타의 日本文化學院의 學生이라고 한다.

1年前부터 日本語를 工夫 하고 있어서 그 日本語의 程度는 타이어 新報社의 金澤編輯長이 「나의 英語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었으니 그 程度의 日本語였다 라고

生覺하고있으면 靨참을것이다. 이 通譯料 1時間 1,400 루피어(約千圓) 「이곳의 호스데스와 同一한 料金입니다」라고 妙한 計算을 하는것은 川口氏, 곧 야안君에게 田中(Tanaka)首相의 訪問時의 反日테모에對해서 어떻게 生覺하느냐 물어보았더니 그는 一切 不答이었다 質問의 뜻을모르는지 알고도 答을안하는 것인지 貳잡은 質問을 하는 놀이라고 輕蔑해서 答을 안하는지 그 中 어 느것이겠지. 자갈타로부터 BS의 工場을 建設하고있는 부카시까지 約 1時間, 道路가 함부로 混雜하고있었다.

市의 中心街를 떨어져 나감에 따라 板子집이 즐비, 보기만 해도 印尼의 貧困相을 알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 裸足이 많다. 우리들이 巡訪中 裸足の 사람이 많았든 것은 比律賓과 이 印尼, 比律賓보다 印尼쪽이 一層生活이 가난한 것 같았다. 暫時가니까 輪軸시가 붙어온다. 이것은 印尼語로 베차라고하며 印尼全體로 100萬臺는 있을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덧붙여서 印尼의 自動車登錄대數를 겪으면 昨年末에

▷乘用車 227,210臺(자갈타市內 103,330臺)

피아트, 폴크스바겐, 호올덴 등이 主流

▷트럭 131,175대臺(24,918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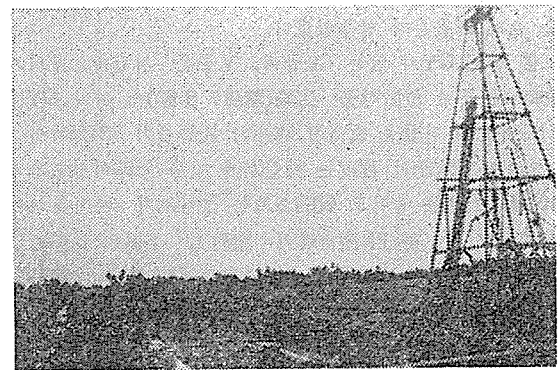
▷버스 26,488臺(6,672대)

▷二輪車 615,220臺(153,122대)

乘用車는 2年前부터 急增해 왔다고 하나 이 數字를 보아도 얼마나 베차가 庶民의인 탈것인가를 알수있다.

그러나 자갈타市內는 交通滯滯를 緩和하기 爲해서밤의 10時까지 단채로 들어가는 것은 禁止인 모양이다. 이베차의 料金, 가까운곳은 25루피어(約 18円) 먼곳이라도 100루피어(80円)이라고하니 싸다.

베차와 함께 市民의 발로서 親近한 사이에 있는것이 오오스퀸을 改造한 오프렛트 라고 呼稱되고 있는 터니 버스(寫眞6 參照)10名은 탈수있다는것, 이 오프렛트의



寫眞 5 寫眞 4의 길을 300m 假量 가면 BS印尼工場建設豫定地가 나온다. 右側의 望樓가 工場用水를 爲한 2號硯. 道路의 右側의 草原의 部分이 工場으로 된다.

한층 카메라를 들리니 少年들이 「자 撮影하세요」라고 하면서 곧 포오즈를 취했다.

그들은 굉장히 明朗했다. 보니 前輪의 타이어는 중대가리.

이런것으로 그들은 잠도 走行하고 있으니 놀라지 않을수었다. 이 오프로드, 손만들면 어디서나 停車해준다고 하니 便利한 탈것인 모양이다. 또 버스도 相當히 利用되고 있다는것. 楠社長이 今後 BS의 貴重한 需要者로 되어 줄것이라고 해서 試驗삼아 타왔때의 體驗談, 「난간을 손으로 잡으니 손에 기름이 묻었다. 호텔에 돌아와서 손을 씻었어요」 그위에 普通은 20 루피아이지만 楠氏は 日本人인 것같았으므로 25루피아를 빼앗긴 것같았다. (그저 여기서 印尼人의 名譽를 爲해서 附言하면 그들은 沐浴湯을 使用하는 習慣은 없는 貌樣이다. 그래서 아무때도 땀으로 저저있다고 한다. 또 借家를 하는데도 沐浴湯이 있는 집은 宏壯히 借세가 비싸다. 그위에 借家를 할 境遇 5年分의 先金 (約1,500万圓)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草原과 水牛, 흙투성이길과 샘

BS印尼工場建設中이라고 썼으나 아직 「소리는 나도 貌樣은 보이지 않고」라고하는 段階로서 우리들이 갔을 때는 國道로부터 工場에의 進入道路와 工場用水用の 샘을 파고있는 中이었다. (寫眞 4, 寫眞 5參照)

이곳의 土質은 粘土質로서 地盤이 물은데다가 道路工事は 專혀 人力으로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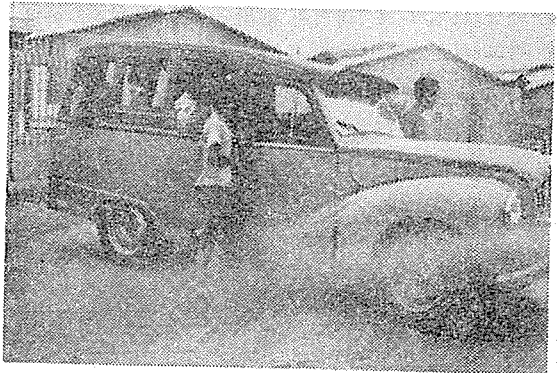
우리들도 모처럼 이곳까지 왔으므로 흙 투성이의 길을 正門이 되는 곳까지 걸어서 갔다. 눈끝까지 草原과 水田이 繼續되어 草原에선 水牛가 풀을 뜯고 있었다.

眼前에 閑暇로운 風景이 展開되었다.

이레가지고서야 工場建設을 보려고왔는지 田園風景을 보려고 왔는지 알수없었다.

그後 印尼 GY가 있는 보골에, 보골은 자칼타로부터 60km의 곳에 位置한곳. 工場(寫眞7 參照)에 가니 GY 側에서도 우리들을 爲해서 專用的 通譯者가 準備되어 있었다. 日本語의 程度는 야안君과 같은 水準이었으므로 量的으로는 불어도 質적으로는 무라스가 되지않는 形便이었다. 곧 PR擔當者의 案内로 工場을 見學했다. PR氏 戰後 新聞記者로서 日本에 駐在하고 있었는 貌樣으로서 좀 日本語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의 工場見學을 하고 있는 寫眞을 찍어서 뒤에 보내주기도 했다. 從業員 1,000名, 中 스태프300名, 生産本數는 日産 3,000本 新고무量으로는 1日 20屯, 勤務時間은 3班制로서 7時~3時 3時~11時, 11時~7時, 7時間半 勞動에 30分 休息 B.O.M프레스 30臺 日本神戶製鋼(株)

製와 매크닐마크론製가 半半, T.B의 生産이 主이며 라디알은 아직 生産되지 않고 있었다. 原材料는 生고무 以外는 日本으로 부터 輸入, 工場은 35年前부터 操業하고 있기 때문에서 인지 낡은 機械가 많았다. T.B의 成型機 앞에서는 「이 機械는 新機械다」라고 PR했다 그래서 1日 얼마나 生産하는가를 質問한 即 「1名이 40本 그러니 1日에 120本이다」라고하는 解説 (뒤에 BS의 日本工場같은 日 얼마 假量이나 成型하느냐? BS의 各位에게 물은 即 平均 1名 60本程度는 아닐런지.



寫眞 6 印尼에서는 이 오프로드를 改造한 오프로드가 배차(人力車)와 함께 가장人氣가 있다. 카메라를 대니 자 찍으라는 뜻이 포오즈를 취해 보였다.

그러니 하루면 180本 그렇다고는 하나 이것은 日本人과 印尼人 또 氣候의 相違같은것 等도 있어서 單純하게는 比較 할 수 없다, 多分히 BS도 印尼에선 日本과 같은 페이스에선 生産안될 것이다.)

그래서 눈에 띄는것은 縱 100m×橫 10m의 스페이스들은 即 近間 이곳에 機械를 넣는다고 한다. 「增設인가?」「그렇다」의 對答, BS를 맞아 討伐하기 爲한 準備일 것이다.

BS를 맞아치기爲한 增設

그後 生産擔當部長에게 인터뷰. 그러나 通譯이 시원치 못해서 뜻고 싶었던 것은 거의 못듣게 되었다. 「1975년까지에 日産 4,000本~6,000本으로 擴大하고싶다」現在 日産, 3,000本이므로 30%얼프, 或은 2倍假量으로 한다는 것인가. 그러나 그 스페이스라면 크게 잡아서 30% 얼프로 끝이지 않을런지.

BS가 進出하는데 對하여 어떻게 生覺하는가 「우리들은 인도네시아를爲하여 또 GY를 爲하여 일하고있다. 印尼에 어느곳의 타이어 메이커가 와도 그것은 관계치 않는다 BS라도 勿論相關없다」

相當히 外交辭令的인 對答. 現在의 生産은 日産3,000本인가? 「今年의 生産은 91萬 5千本을 目標로하고있

으나 6월부터 増設分이 稼動하므로 130萬本은 生産되는것이 아닐런지, 日本의타이어 메이커가 같으면 生産豫定量을 적게 表示하고 있지만 印尼 GY는 늘 많이 表現한다고한다 生産豫定量은 많이 發表해놓고 實際로는 적게 生産한다.

이렇게되면 供給이 不足하므로 價格을 維持할수가있다 如此한 理由로 해서 대충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모르겠다. 賣上高, 純利益에 對해서도 못고싶었지만 이만하고 GY를 辭謝했다.

屈服하고만 印尼料理

이 GY訪問에서 우리들의 일은 全部 끝났다. 뭔가 홀가분한 氣分이 되었다. 그런데 疲勞感이 掩襲해왔다. 后 川口氏가 모처럼 이곳까지 왔으니까 하던서 峯峯크고개(嶺)로 案内해 주었다.

印尼의 輕井澤(譯者註 日本의 名勝地인 가루이자와)



寫眞 7 자칼타로부터 60km의 보골에 있는 GY의 工場正面, GY는 戰爭中의 一時期를 除外하고는 35年間 印尼의 市場을 한손에 쥐고 있었다.

라고 할수 있다고 한다. 確實히 輕井澤고개에 가까와짐에 따라 여기가 印尼인가 라고 새삼 生覺될 程度로 서늘하였다. 第1回 亞細亞 阿弗利加會議가 열려서 有名해졌던 반둥은 이 山의 저쪽便에 屬한다고 한다.

峯峯크고개의 山頂에 到達하니 濃霧로 아무것도 안 보였다.

이 山頂의 레스토랑에서 비로소 印尼料理 다운것을 먹었다.

印尼料理는 BS의 各位도 日本人의 食性에 안 맞는다고해서 그다지 勸하지는 않았으나 元來 食蟲이인 나로서는 飢渴根性100%를 發揮하여 印尼에온 以上은 한 番쯤 飽食해 두지 않고서는, 하고서 마구 먹었으나 確實히 이것에는 屈服했다. 단것 같은것도 짜고 짠것 같은것도 달다.

야안쑤에게 「맛이 있는가」라고 물은即 「맛이었다」고 한다. 어째서 이것이 맛이있는지 알수가 없었다. 그다음날 膳物用으로 바틱크 [印尼產사라사(更紗)]를 사서 惶急히 飛行機에 올랐다.

이 바틱크에 對해서는 1名當 10張까지로 制限을 붙이고 있는 모양이다.

日本人들이 슬그머니 사가지고 가므로 이것을 막기爲해서 制限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들도 評判이나 빠다. 醜한 애코노믹애니멀(經濟的動物)이라고부를 程度, 우리들은 日本人觀光客으로 混雜을 이루고있는 香港空港에서도 決死的(?)이 되어서 위스키이나 일담배를 사서 혈레벌씩 東京行의 担保機를 닦다.

그리하여 海外에서 膳物을 사는 일이 이렇게도 苦役인가. 라고 비로소 깨달았다. 그런故로 벗님네야 膳物 없다고 투덜대지를 맏소사! (끝)(74.6 日本 月刊타이어誌)

타이어 고무誌 總目次

(52p에서 계속)

題	目	發行年月	題	目	發行年月
美國의 自轉車타이어 需要豫測		74 10	協會및 會員社動靜		74 每月
日, 自轉車生産輸出狀況		" 10	會員社營業所및 代理店一覽表		" 每月
自動車生産統計表		" 每月	其他		
業界消息			編輯後記		" 每月

◎ 「訂正 및 謝過」

1974年 10月號 本誌表紙 4面. 三陽타이어 工業株式會社の 本社 工場의 住所에 있어서 全南 光州郡은 全南 光山郡의 誤植이었으므로 이에 是正함과 同時에 深謝합니다.